진안 저소득층에 연료지원

사회복지협, 55가구 선정… 가구당 등유 200리터 · 연탄 300장 · 땔감 1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4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연료 지원 사업을 펼쳤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에너지빈곤가구 가운데 장애가구와 노인, 아동 등을 우선 순위로 수혜가구 55가구를 선정했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2주간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등유 200리터, 연탄 300장, 땔감 1톤 등으로 지난해부터 등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가구에도 연료를 지원하게 돼 다양한 연료를 폭넓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사랑의 연료지원 전달식에는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군의원,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연료를 전달했다.

송상모 회장은 "연탄이나 땔감 등은 서민 가정의 중요한 난방 에너지 수단" 이라며 "오늘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단의 따뜻한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저소득가정에 매년 연탄을 지원하며 이웃들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마쳐

임시회 폐회…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26개 사업장 조사 완료

장수군의회는 2017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285회 임시회를 25일 폐회했다.

장수군의회는 2017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285회 임시회를 2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문)를 구성, 7개 읍·면 26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 더불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낭비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장수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개선으로 안전성, 편리성, 가계부담 경감과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완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호응도가 높아 매우 잘된 사례라며 적극적인 사업신청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매번 반복돼 지적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개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소방안전타운의 조성을 위해 사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과 번암면과 천천면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조속히 개장하여 영농철 농기계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농산물 판매대책 마련, 각종 공사 추진 시 주민불편 최소화와 가야문화복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유기홍 의장은 집행부에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제기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 보완토록 하고, 잘된 사례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임시회 기간 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8건 심의

진안군은 25일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2017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부군수실에서 가졌다.

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와 당연직 공무원 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4명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안천면 아동놀이터 설치'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 매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했다.

유근주 부군수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번 주말에는 사과골 무풍면으로

무주군 무풍면민의 날 28일 개최… 체험행사 등 마련

제28회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이 오는 28일 무주군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무풍면체육진흥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마련되는 것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화합행사와 체육, 민속행사(사과탑 빨리 쌓기 등), 기념식, 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며 반딧불 사과 전시와 판매부스, 사과 시식코너, 사과 포토존 등은 부대행사로, 무풍사과단지에서 진행되는 사과따기는 체험행사로 마련된다.

무풍면 관계자는 "이번 주말 사과향기 가득한 무풍면으로 가을여행 한번 오시라"며 "반딧불 사과 맛도 보시고 후덕한 시골인심도 느끼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과축제를 겸해 열리는 무풍면민의 날 행사는 올해로 28회 째를 맞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사연 · 유열과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11월 1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해피 365 문화행사 일환

노사연·유열과 함께하는 재즈 콘서트가 11월 1일 저녁 7시 30분 무주군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017 명사·전문가 초청 해피 365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날 공연은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며 가수 노사연씨의 '만남', '바램', '님그림자', '아무라도'를 비롯해 유열씨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이래', '가을비' 등을 들을 수 있다.

또 기타리스트 김남균씨가 이끄는 서울재즈빅밴드(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 퍼커션 등)의 연주와 성악가 서동희(바리톤), 오유석(바리톤), 이지혜(소프라노)씨가 선사하는 클래식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주민들은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대중가요는 물론, 재즈, 클래식까지 폭넓게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사들의 공연도 보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해피 365 행사가 이제는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9일과 30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김영숙 도슨트가 진행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강연(1일차 생활 속 미술 및 감상, 2일 차 동·서양 미술여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세외수입 역량강화 교육

장수군은 세외수입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5일 실시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업무역량강화교육은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허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정확한 활용방법 숙지와 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의 전산운용 방법 등 세외수입 업무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개별법령에 따른 담당자들의 정확한 징수결정, 체납처분, 결손 등 업무추진이 강조됐으며, 전산을 이용한 실습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군 안보단체 · 재향군인회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견학

장수군 보훈 및 안보단체와 재향군인회가 합동으로 지난 24일 6.25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찾아 조국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단체장 및 회원 40여명은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방문, 유물 등을 통해 6.25의 참혹한 현장을 간접 체험했다.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위치한 포로수용소는 6.25 전쟁 중 늘어난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1951년부터 거제도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됐고, 최대 17만 3,000여명을 수용하고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까지 사용했다.

이날 안보단체 회원들은 그 당시의 사진, 장비, 의복 등 전시물과 6.25전쟁 및 포로수용소의 기록물 등을 통해 전쟁역사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송재선 회장은 "우리가 금번에 보고 느낀 것을 후세들에게도 잘 알려 다시는 전쟁이 되풀이 되지 않게 튼튼한 안보의식을 갖고 군민들 계도에도 앞장서자"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사색 · 치유 프로그램' 실시

진안교육지원청이 지난 24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연수원, 공주 마곡사에서 '2017년 교권보호를 위한 사색과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권보호 치유 프로그램은 '명상치유·기체조, 숲체험'을 통해 참여 교사들이 업무로부터 벗어나, 감수성 향상과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 교원의 위기 집중 관리를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공감 및 소통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경험이 되었다.

오후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연수를 통해서는 실제 학교 현장 사례에 따른 구체적 대응 절차를 교육받았으며, 학부모·학생 및 동료교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갈등 상황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교사들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자연 친화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의 의미와 유형별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